

80여 평생 춤만 추다 간 한국 전통 춤의 거목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살풀이 춤 보유자 우봉 이매방 선생 별세

목포 10남매중 막내로 태어나...7살때 권번서 춤 입문 검무·장고춤 등 전통춤 기틀 잡아...후진 양성도 열정

“허리가 아파서 춤은 지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앉아서 했제. 육자배기 장단에 맞춰 춤춰어. 육자배기가 느린 진양조 아닌가. 그것 맞춰서 몇번 놓고 앉아서 한풀이 했제. 관객이 좋아하더라. 지금도 춤추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

광주일보사가 발간하는 잡지 ‘예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이매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8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대에서 ‘입춤’을 선보이며 감동을 선사한 그는 영원한 춤꾼이자 스승이었다. 죽을 때까지 춤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그는 올 12월 무대에 설 계획도 갖고 있었다.

7일 88세의 일기로 타계한 목포 출신 우봉 이매방 선생은 80평생 춤과 함께 해온 한국 전통춤의 산 증인이다. 특히 한 예술인이 평생 하나도 갖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를 두 부문(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제97호 살풀이춤)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1927년 목포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누님들 치마저고리를 입고 경대 앞에서 춤추곤 했다. 7살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목포 권번(기생조합)에 들어가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8년 동안 목포 권번에서 이대조 선생에게 승

무와 북놀이, 검무, 고뎃을 배웠던 그의 데뷔무대는 1941년 국창 임방울 선생이 주최한 공연이었다. 당시 주연급 무용수가 공연을 펼치자 임방울은 급히 ‘춤 잘 추는 목포 소년’을 무대에 올렸고, 그는 이 무대에서 승무를 선보였다.

본명이 이규태인 그는 중국 경극배우 매란방에서 따온 이름 ‘매방’을 평생 썼다. 초등학교 때 대련에서 운수업을 하는 큰형의 집에 4년간 머물며 매란방을 만났고 그에게서 장검무, 등불춤 쟁탈춤 등을 배웠다. 이 선생의 대표적인 장검무는 매란방에서 배운 춤을 토대로 창작한 춤이다.

그는 한국 전통춤의 토대를 만들었다. 1948년 북 3개를 놓고 추는 삼고무를 창작했고 7고무, 9고무, 11고무까지 확대했다. 또 초립동, 화랑무, 검무, 장검무, 무당춤, 장고춤 등 전통춤의 틀을 잡았다. 그밖에 북경아시아인 게임 문화 예술축전, 미국 유럽 순회 공연,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하는 등 해외에도 한국춤의 우수성을 알렸다.

춤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공연을 앞두고 제자들과 의상과 소품을 직접 준비했다. 그의 손때가 묻은 재봉틀은 어머니가 시집

을 때 해온 것으로 100년이 넘는다.

이매방 선생은 제자를 키운 데도 남다르다. 25살이던 1951년 전북 군산에 무용연구소를 개설한 이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서울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왔다. 또 고향인 목포의 이매방 춤 전수관에도 자주 들러 지도했다.

이 선생은 춤으로 일가를 이뤘다. 부인인 무용가 김명자씨는 그에게 승무와 살풀이를 배워 현재 교육조교로 있다. 검무를 배운 의동말 현주씨는 한성대 무용과에서 현대무용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뉴욕으로 건너가 재즈 공연을 하기도 했다.

같은 목포 출신인 고 차범석 선생은 이매방의 ‘승무’를 보고 “그는 진짜주나 기식으로 춤을 추지 않는다. 그의 우수에 잠긴 눈빛에서부터 조용히 내뿜는 발끝에 이르기까지 혼으로 춤을 춘다. 그것은 흡사 도를 닦는 스님이요, 사색하는 철학의 모습”이라고 평했다.

“춤하고 인생도 똑같아. 노력하면 늘고 게으르면 늘지 않아. 마음이 고와야 춤도 고운법이야. 한국 춤의 아름다움은 정중동(靜中動)에 있어. 한국 전통춤의 멋은 기와지붕이나 한복의 선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이지. 관중이 천명이고 만명이고 간에 그 사람들을 잡았다 봤다 하면서 그 사람들 오장을 속속들이 후벼놓고 올려놔야 명창(名唱)이나 명부(名舞)니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한국 예술계의 큰 어른이 남긴 말은 많은 예술인들이 꼭 새겨야 할 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이매방의 살풀이 춤.



1941년 목포공업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이매방(왼쪽).



1974년 새가족, 의동말 이현주씨 한살 때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장구 반주를 하는 모습.

이매방 선생의 고향 목포사랑

우봉 이매방 선생의 ‘목포 사랑’은 그의 마지막 행적에 잘 드러나 있다. 우봉에게 고향 목포는 예술의 모태다. 자신의 이름을 딴 전국무용대회는 목포와 선생을 이어주는 맺음이나 다름없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고향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봉은 여느 때처럼 10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며칠 뒤 눈을 감았다.

앞서 목포시와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는 전통춤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한 ‘제10회 우봉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를 지난날

눈 감기 며칠전까지 목포 전국무용대회 참석 목포 이매방 춤전수관 찾아 승무·살풀이 전수

24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고, 우봉은 의연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매방 선생은 후진양성과 전통춤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이 행사에 사재를 출연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목포 곳곳에도 우봉의 흔적은 남아 있다. 목포문화회관에 있는 우봉 이매방춤 전수관 한국 춤의 큰 어른 이매방 선

생의 살풀이와 승무를 전승하는 공간이다. 선생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 직접 강의를 진행했다.

전수관에는 이 선생의 공연자료와 의상 등이 전시돼 있다. 인근의 향토 문화관에 마련된 이매방 기념관에는 선생의 일대기, 작품 감상코너 등이 마련돼 있다.

이 공간에서는 전국 중견 무용예술인, 무용지도자, 전공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살풀이춤 연수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목포 문화예술회관 내 ‘이매방춤 전수관’에 이날 설치된 임시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등이 헌화했고, 목포지역 예술인 300여명이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시민들의 방문도 잇따랐다.

이 분향소는 한국 예총 목포신안지회 주관으로 11일까지 운영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9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목포를 사랑했던 영원한 춤꾼 이매방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추모객의 행렬이 이어졌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8월 22일까지 SALE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 1899-0240 **신상품 다량 입점**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통나무가구 **모던가구** **이태리가구**